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2 신년사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미래를 준비하자'

03 이모저모

400g 초미숙아
건강히 퇴원

04 이모저모

길병원TV 유튜브
실버버튼 획득

05 안내

증명서 발급
모바일로 가능

2025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4년이 저물고 희망으로 가득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께
최대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암, 심뇌혈관 등 중증, 응급,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더욱 전문적인
최상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든 의료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푸른 뱀 띠 해 가천대 길병원은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천대 길병원 임직원 일동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 신년사

'초인공지능시대, 혁신적 사고로 미래를 주도하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옛말처럼, 이제 21세기의 모든 길은 인공지능으로 통합니다.
AI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를 쌓고 생성하며 진화해 갑니다.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과 창의적 사고로 미래를 성공적으로 주도해 나갑니다.

자세히 보기 2면



www.gilhospital.com 진료예약·문의 1577-2299

등록일 2008년 7월 29일 | 등록번호 남동 라 00014 | 발행인 이태훈 | 편집위원 가천대 길병원 홍보실
디자인 (주)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25년 회장 신년사

‘초인공지능시대, 혁신적 사고로 미래를 주도하자’



사랑하는 재단 가족 여러분!

올해는 을사년 뱀띠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치밀함의 상징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나라 안팎의 정치적 환경, 경제적 여건이 유례없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만큼, 우리 모두 냉철한 판단과 직관으로 합심해서 슬기롭게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신년을 맞는 이 순간, 단 한 가지 화두(話頭)만을 골똘히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21세기, ‘정해진 미래’를 직시하고, 그 방향으로 오늘의 선택과 행동을 치밀하게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천 가족 여러분!

AI 혁명은 낱알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생성형 AI 챗GPT의 최신버전(GPT- α)이 한국의 대입 수능 국어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출시 직후 미국 변호사시험을 거뜬히 합격하던 챗GPT가, 1년 전만 해도 외국인인 한국어시험에서는 겨우 8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여만에 한글 강화학습으로, 까다로운 수능 국어를 완벽하게 풀어낸 것입니다.

2024년 노벨 화학상은 구글 딥마인드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가 받았습니다. 그는 화학도가 아니라 컴퓨터공학도이며,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2016년 바둑 천재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만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둑도, 화학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 천재를 이기고,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 AI모델인 ‘알파폴드’(AlphaFold)를 개발한 공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옛말처럼, 이제 21세기의 모든 길은 인공지능으로 통합니다. AI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를 쌓고 생성하며 진화해 갑니다. 하사비스의 예를 보면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단백질의 발견이나 설계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고, 중국에는, AI가 신약개발이나 단백질 공학을 직접 수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 대신에 AI가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을 휩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미디어는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미래 AI시대를 소상하게 완벽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타성과 관행을 완전히 깨트리는 시

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챗GPT조차도 우습게 여겨지고, 인간과 같은 지능의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오고, 나아가 인간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초인공지능(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정해진 미래’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재단 가족 여러분!

인공지능이 무르익어, 마침내 초인공지능의 시대가 ‘정해진 미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AGI와 ASI가 인류 역사와 문명의 판도를 새롭게 편성하는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시대착오적인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창조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북극성처럼 아득히 저 멀리 빛나는 AI 만능의 초인공지능시대를 향하여, 정확하게 좌표를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70년대 초, 선도적으로, 산부인과에 초음파기를 도입한 것이나, 국내 최초로, 병원 전산화를 위해 닥터오더링 시스템을 보급한 것, 암 진단을 위해 AI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 것, 그리고 2004년에 가천뇌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7.0 테슬라, 11.74 테슬라 MRI를 개발한 일 등 ‘정해진 미래’를 향해 언제나 앞장서서 달려온 혁신의 DNA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학부에 AI학과를 만들고 세계최초로 반도체대학도 세웠습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이런 경이로운 시대에 걸 맞는 교육과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생성형 AI를 전자계산기처럼 학생에게 주고, 성적을 평가하는 상황도 상정해야 합니다. 길병원도 AI 노벨 의학상 시대를 내다보며, 해묵은 타성과 아날로그식 발상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혁신의 의료인으로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미래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초인공지능 시대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혁신적 사고로 기꺼이 맞이해야 합니다.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과 창의적 사고로 미래를 성공적으로 주도해 나갑시다.

을사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가천길재단 회장
가천대학교 총장
의학박사 이길여



가천대 길병원에서 태어난 400g 초미숙아, 140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

신생아집중치료구역센터 운영,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400g이라는 작은 몸으로 태어난 초미숙아가 가천대 길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140일 여 치료를 받고 지난 12월 19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산모 A씨는 지난 8월 2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했다. 임신성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A씨는 가천대 길병원 고위

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로 전원해 임신 23주 4일에 조금 일찍 사랑하는 딸을 만나게 됐다. 400g의 초극소 저체중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임신 37주 미만 미숙아, 2.5kg 미만 저체중 출생아들은 출생 이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특히 1000g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들은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동맥관개존증 등과 같이 호흡과 혈액순환의 문제로 고난도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담당 의료진들의 세심한 치료와 A씨 부부의 사랑과 정성 속에서 아기는 140일 동안 무럭무럭 자라 140일 만인 19일 2.8kg으로 건강하게 퇴원했다. 퇴원해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아기를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진들이 함께 나와 앞으로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집중치료구역센터로 지정돼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30병상을 운영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중등도 평가 시행률, 48시간 이내 재입실률 등을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가천지역사회상생봉사단
취약계층 이웃에 김장김치 1300kg 전달 (12/4)

남동구와 시각장애인 세대에 선물



'제주덕구 구월점', 가천대 길병원에
사랑의 헌혈증 100매 기부 (12/10)

식당 이용 고객, 직원들이 모은 헌혈증



가천대학교 학생들, 헌혈로 전하는 사랑
가천대 길병원에 헌혈증 1100매 전달 (12/26)

2017년 이후 누적 2,900매 헌혈증 기부



가천대 길병원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암생존자 칼림바 연주회 개최 (12/17)

암 극복한 환자들 따뜻한 연주로 감동



2024년도 협력병원 초청간담회 성료
협력병원 등 200여 명 참석 (12/17)

지역 완결형 의료 협력 발전 논의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진들
및 가천메디컬라이온스클럽 회원

해성보육원에 시설 아동 위한 성금 전달 (12월)

가천대 길병원 유튜브 '실버버튼' 획득 건강정보로 구독자 12만 명과 소통



가천대 길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유튜브 채널 '길병원TV'가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 '실버버튼'을 획득했다. 12월 12일에는 병원 설립자 이길여 가천대 총장과 임직원들이 모여 실버버튼 획득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길병원TV는 정확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19년 7월 개설했다. 약 1년 만에 구독자가 1천 명으로 늘었고, 2년 만에 10배 성장해 1만 명을 돌파했으며, 약 4년 여 만에 10만 명이 구독하는 특정한 채널로 자리 잡았다. 길병원TV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채널에 주어지는 실버버튼을 획득했다. 현재 길병원TV 구독자는 12만여 명이다. 가

천대 길병원은 찾아가는 건강강좌 등 시민들의 건강 의식 향상을 위한 의료정보 전달을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길여 총장이 1958년 병원 설립 이후 병원이 없는 무의촌을 방문해 의료봉사와 더불어 건강강좌를 시행한 것이 시초다. 환자들과의 소통 방식이 다양해지고 온라인 활용자가 늘어나는 트렌드에 맞춰 유튜브 채널 운영도 더욱 활성화했다. 길병원TV는 '명의를 전당', '스타닥스' 등 코너를 통한 의료진들의 건강 강의는 물론,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코너 등 다양한 영상으로 환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병동 의료진들,
크리스마스 이벤트 개최 (12/24)

병원에서 크리스마스 맞는 환아들에 작은 선물



직업환경의학과 최원준 교수(사진 오른쪽)
인천광역시시장 표창

인천 환경보건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



국민검진센터, 인천 지역 유일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전분야 최고 등급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 평가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주관
2024 가천의과학심포지엄 성료 (12/7)

가천대 길병원 등 연구 성과와 노하우 발표



제17회 간호학술대회 개최
임상간호연구논문, QI 활동 등 발표 (12/6)

간호본부 매해 개최, 간호질 향상도모



가천대 길병원-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12/2)

건강검진, 병원 이용 등에서 지원 계획

미디어 핫클립



▶ 신경과 이영배 교수
 MBN <명을 사수하는 사람들> (11/27)
 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혈관질환

▶ 피부과 백진옥 교수
 TV조선 <순범수와 함께 100세 더하기> (11/30)
 피부 동안, 콜라겐을 채워라

▶ 소아청소년과 류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2/4)
 겨울철 감기 열 내려주는 파스?

▶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KBS <아침마당> (12/4)
 나를 살리는 건강검진

▶ 신경외과 김명진 교수
 채널A <행복한 아침> (12/17)
 건강을 위협하는 겨울철 뇌혈관 질환

▶ 심장내과 이경훈 교수
 채널A <행복한 아침> (12/17)
 겨울철 심혈관 질환 주의

▶ 응급의학과 양혁준 교수
 OBS <매거진톡톡> (12/20)
 하늘을 나는 생명의 날개, 닥터헬기

▶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TBN 경인교통방송 <닥터히어로> (12/24)
 중장년층의 우울증

▶ 소화기내과 신승각 교수
 SBS <모닝와이드> (12/25)
 연말 술자리 모임, 건강하게 지내는 법

▶ 심장혈관흉부외과 박국양 교수
 KBS <아침마당> (12/26)
 심장 수술이 행복한 의사

▶ 정형외과 심재양 교수
 TBN 경인교통방송 <닥터히어로> (12월 매주 금요일)
 무릎 관절 질환 치료

▶ 치과 조진용 교수
 경향신문 <턱관절 장애> (12/6)
 턱관절 장애 환자 10년간 60% 증가

▶ 산부인과 전승주 교수
 세계일보 <피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12/9)
 피임법 종류 및 장단점, 부작용

▶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
 중앙일보 <폐동맥 고혈압 바로알기> (12/23)
 폐동맥 고혈압, 일반 고혈압과 차이

고객의 소리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고의원 교수

희미해진 호흡도 온전한 한 생명으로 대해주시고 의원 교수님을 칭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성과 최고의 의술로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절망에서 소망의 너른 대지 위로 건져 올려주신 교수님께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기쁨을 다시금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선물해 주신 참의원이신 교수님을 칭찬합니다.

이00님



비뇨의학과 김광택 교수

5월에 신장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은 처음이라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지만 김 교수는 부드러운 태도와 환자를 안심시켜주는 아름다운 마음씨, 보호자까지도 배려해주시는 넓은 마음, 수술 후 감사 인사를 드렸을 때 오히려 환자가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배00님



감염내과 이주영 교수

첫 진료를 보면서 피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단순히 피검사 결과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제 건강 상태나 식이 등 여러 부분을 친절히 자세히 살펴주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마음을 느꼈고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HIV 환자들의 큰 기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00님



인공지능병원 13층 박민주 간호사

난소암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불안해하는 환자를 위해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자주 해주시고 환자가 알아듣기 쉽게 항상 웃는 얼굴로 차근차근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하는 탁월한 간호에 대한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홍00님



방사선종양학팀 용석은 방사선사

방사선치료가 처음이라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열 번의 치료가 끝날 때 까지 편안하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셔서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감사해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저에게 주신 따뜻한 마음만큼, 용 선생님도 어디서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소망할게요.

김00님



통원치료센터 정지영 간호사

정 간호사님의 친절하고 다정한 응대에 감동한 환자입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칭찬에 인색한 제가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귀가하는 환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불편한 건 없었는지 확인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 간호사님께는 특별한 친절함이 있습니다.

한00님

친절 우수 직원

2024년 11월 4주차~12월 3주차

부서 | (여)7층병동, (응)10층병동, (인)116병동, (인)136병동, 내과계집중치료실2, 내과계집중치료실3, 분만실, 신경외과집중치료실, 신생아집중치료실, 심혈관낮병동, 통원치료센터, 피부과외래

진료부 | 감염내과 이주영 비뇨의학과 김광택, 박태영 산부인과 김석영 소화기내과 김연석 신경외과 오한산 외과 김성민, 박연호, 박흥규, 이원석, 전용순 중양내과 박주환, 신동복 피부과 박상현, 백진욱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고의원, 이상표

간호본부 | VIP건강증진센터 김채림 외래간호1팀 김지혜, 문상희, 문연화, 신정은, 황솔 외래간호2팀 이신혜, 이지희, 최인혜, 황지선 입원간호1팀 김주아, 김진아, 조민하, 최희숙 입원간호2팀 강기원, 김가현, 김다현, 김소연, 김유리, 김혜진, 남애선, 류혜지, 박규리, 박민주, 박세아, 선예지, 송민지, 송유성, 유해연, 이나경, 이다혜, 이연심, 이재민, 이주림, 장명자, 장서영, 정노을, 조민하, 주하은, 최은진, 최지나, 최창순 입원간호3팀 강승연, 김소연, 김은선, 김지수, 김현경, 박다슬, 박민경, 백미란, 서혜영, 이시은, 이채은, 이현관, 태수철 중환자간호팀 김군자, 양혜린, 정지윤 피부과외래 박수빈, 한지윤

진료지원/행정부 | 영상의학팀 이성빈 원무팀 우경선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 한국공학한림원 1호 명예회원 추대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 세대에 큰 영감, 대한민국 공학기술발전에 공헌'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2월 17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김기남) 주관 '제55회 정기총회 및 명예회원 추대식'에서 한국공학한림원 1호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명예회원 제도를 제정하고, 첫 명예회원으로 이총장을 추대했다. 김기남 회장은 추대사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은 미래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대한민국 공학기술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며 이총장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총장은 가천대학교,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한 가천길재단을 운영하며 의료와 교육 혁신, 의과학 발전에 앞장서왔다. 이총장은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로 1958년 인천에 이길여산부인과를 개원한 이래, 여의사 최초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 국내 최초 초음파기기 도입, 병원 전산화, 닥터헬기 및 권역 외상센터 운영, 인공지능 왓슨도입 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며 혁신을 이어왔다.

아울러 가천의대 설립, 재단 내 4개 대학 통합, AI학과 신설 및 국내최초 반도체대학 신설 등 '공학중



심대학' 운영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혁신을 선도하고 가천뇌과학연구원,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운영 및 정부지정 연구중심 병원 TOP3 선정 등 의과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총장은 이날 추대 인사말에서 "지난 90평생을 인류에 대한 사랑과 혁신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며 "공학한림원의 명예회원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공학한림원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기여하고

공학의 발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류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학계, 산업계 및 국가기관 등에서 공학 및 기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발굴·우대하고, 공학기술과 관련된 학문연구와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의 창조적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특별 법인이다.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현장 견학



가천대학교 클라우드공학과 지도교수를 비롯한 20여명의 재학생들이 12월 16일 판교에 위치한 카

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이경진)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지난해 가천대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분야 채용 연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체결한 '가천대학교-카카오엔터프라이즈간 계약학과 운영협약'의 일환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은 이지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최고성장책임자(CGO)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산업현장 투어 및 기념 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한 클라우드공학과는 가천대학교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계약학과 운영협약을 통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는 최초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이며, 학생들에게는 4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클라우드공학과 교육과정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클라우드 전문가와 협업해 기업수요 맞춤형 표준 교육체계로 특화, 현장 맞춤형 프로젝트와 핵심역량별 심화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학생들은 현장에서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을 이론부터 실습까지 모두 학습한다.

가천대 총동문회, 2024 '자랑스러운 가천인의 밤' 행사 개최

가천대 총동문회가 12월 5일 가천컨벤션센터에서 '2024 가천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가천대의 명예를 높이고 있는 동문들이 초청됐다. 이길여 총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맹활약 하고 있는 동문들의 응원 덕분에 가천대학교가 발전을 거듭해 나 갈 수 있었다"며, "가속도를 더해 우리의 목적지인 글로벌 100대 대학

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연임해 내년부터 8대 총동문회장의 새로운 임기에 들어가는 송성근 총동문회장은 환영사에서 "연임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동문유대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며, 대학 발전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즐거로운 가천대 길병원 이용법

기다림 없이 빠르고 편리한 비대면 결제 방법 3가지

하나!
외래 진료비 알림톡(카카오톡) 결제 가능!

둘!
키오스크(무인수납기) 수납 가능!

셋!
진료비 하이패스 (모바일 '길병원' 앱 다운) 가능!

세 가지 방법으로 기다림 없이 수납하세요!

모바일 제증명 발급서비스 오픈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등 '길병원' 앱/정구의신'에서 발급가능]

기부는 사랑입니다

채00님(60세)은 심장질환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통해 경과 관찰 해오던 중 경제적 문제로 수 개월간 치료받지 못하고 지내오다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 악화되어 본원 응급실로 내원 하였고 중환자실에 입원 하였습니다. 환자분은 과거 결혼 하였으나 오래 전 이혼 후 가족 모두와 관계가 단절 되었고 여인숙에서 홀로 오랜 기간 생활 해왔습니다. 부채로 인해 신용 불량 문제로 계좌가 압류 되는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장병을 진단 받으면서 일용직 근무마저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 생계 지원금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시 지원을 받아 지내왔다고 합니다. 진료비, 약제비 부담으로 병원 치료를 미뤄오다가 건강상태가 악화돼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사업팀은 채00님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 후 우선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하였으나 여인숙 거주자로 실거주지 확인 어렵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서류 증빙이 충분치 않음 등 여러 요인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회사업팀에서는 환자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서류 준비를 통해 병원의 사회사업 기금을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였고 치료 중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걱정이 컸던 환자는 병원의 지원을 통해 안도하며 후원자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퇴원 하였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사회사업팀으로 기탁된 기부금은 경제적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국가, 지자체 기관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상이 못하는 의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치료비를 돕기 위해 소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후원계좌번호 100-014-147300(신한은행, 예금주: 길의료재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요 시 사회사업팀(032-460-3531)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중증 환자 치료 잘하는 병원 각종 최신 적정성 평가 1등급

☆☆☆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 모두

1등급

2022년도 2주기 1차

- ▶ 환자중심 치료성과 반영 최초 평가
- ▶ 다학제 진료·조기 수술 비율 등 환자중심 지표에서 높은 평가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1등급

2023년분

- ▶ 수술부위 감염 예방과 항생제 오남용 개선 목적
- ▶ 99.9점 종합 1등급
- ▶ 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개두술 등 100점

☆☆☆
수혈
적정성 평가

1등급

2023년분

- ▶ 혈액사용 관리 및 수혈환자 안전관리 우수
- ▶ 2020년 평가 이어 2회 연속